

G-페스타·빛가람페스티벌...광주·전남 축제 속으로

2025 G-페스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충장축제
아트광주 25·양동통맥축제
도심 체류 '릴레이 효과' 기대

광주의 가을 행사들이 '2025 G-페스타 광주'로 묶이면서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도심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같은기간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꾸리는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이 호수공원 일대를 무대로 이틀간 진행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이전 공공기관은 18~19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일대에서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날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금관앙상블을 시작으로 지역 청소년 K-팝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합창단 무대가 이어진다. 아간에는 트로트 가수 진이랑과 비보이 EDM 팀 '잭팟크루'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둘째 날은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가 주말 오후의 공원을 채우고, 나주시립합창단·전남도립국악단이 클래식과 국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인다. 주민 공연(라인댄스·장구난타·점핑 줄넘기)과 버블·별론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팝페라가 야간 무대를 구성한다.

19일 오후 7시30분에는 초대가수 김장훈 공연 후 폐막 선언과 불꽃쇼가 예정돼 있다.

공연장 밖에서는 플라마켓과 사회적경제기업마켓, 푸드존이 상시 운영되고, 에어바운스 놀이터·페이스페인팅·비즈팔찌·비누 만들기·민속놀이 등 체험존을 오후 시간대에 집중 배치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피크닉존은 오전 11시부터 밤까지 개방한다. 흑백사진관과 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는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전시형 콘텐츠로 준비했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형 축제"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분산돼 온 가을 행사를 '2025 G-페스타 광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일정 안내와 이동 동선, 관람 정보가 한 채널로 제공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1월 2일까지 포용디자인을 주제로 상설 전시를 이어가며, 일상 속 디자인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광주시·전남도·나주시·공공기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서
공연·플리마켓·반려동물 놀이터

의 사회적 가치와 쓰임새를 전시장 전반에서 보여준다.

거리 축제의 중심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15~19일)는 충장으로 일대를 레트로 콘셉트의 참여형 무대로 전환한다. 같은 기간 '충장라운페스타'와 '버스킹월드컵'이 상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 퍼레이드·버스킹 무대를 더해 체류 시간을 늘린다.

영산강 수변에서는 '광주서창역새축제'(16~19일)가 역사·문화와 야간경관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술·산업 전시도 잇달아 열린다. '아트광주 25'(23~26일)는 국내외 100여 갤러리가 4000여 점을 선보여 컬렉터와 일반 관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A.I. Tech+'(15~17일)가 인공지능 솔루션과 반도체 연계를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광주메디뷰티산업전'(30일~11월 1일)은 뷰티·헬스케어 트렌드를 체험형 부스와 세미나로 풀어낸다.

11월 5~7일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는 전력·에너지 신기술을 총망라해 산업계 네트워킹과 시민 관심을 동시에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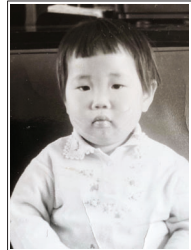
미식·야간경제 프로그램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다. 18일 월곡동 고려인마을 중심의 '광상세계야시장'에서는 다국적 스트리트 푸드와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30일~11월 1일 '양동통맥축제'는 전통시장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을 함께 운영한다. 10월 31일~11월 2일 '광주김치축제'는 경연·푸드쇼·담그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11월 8일 '동명커피산책'은 카페 투어·커피 버스킹·인문 강연을 결합해 가을 시즌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주요 행사는 각 주최·주관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참여 방법을 제공하며,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사전예매가 필요한 전시는 예매 페이지에서 할인·입장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스웨덴 입양 한인들 “뿌리 찾으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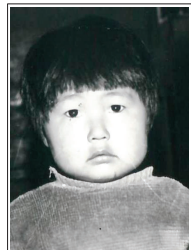
◇ 입양 한인 정보



■ 안나 블레이드(한국명 김학보)
출생: 1966년 6월 16일(추정)
보육원 입소: 1968.06.11
스웨덴 출국: 1968.10.11
가족 정보 없음
연락처: anna@blades.se



■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한국명 서정숙)
출생: 1971년 3월 10일, 본적 이전
출산 직후 어머니 별세. 아버지 행방불명
1971.05.22 외조모가 보호소에 맡김
1971.10.08 스웨덴 입양
연락처: zungsookseo@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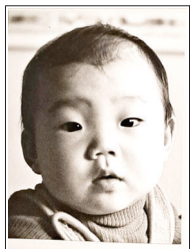
■ 샤를로타 폰 세스(한국명 전자영)
출생: 1978년 3월 20일(추정)
1981.09.18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서 발견
1981.09.19 전남영아일시보호소 입소
1983.01.20 영신원 전원
1983.01.28 스웨덴 입양
연락처: charlottavonseth@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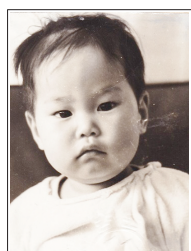
■ 엘리자베스 닐룬드(한국명 김미선)
출생: 1967년 9월 19일(추정)
1968.12.16 함평서 발견
1969.02.11 서울로 이송
1969.08.23 스웨덴 도착
보호소에서 이름 지어줌
연락처: mimmski@hotmail.com



■ 키 프로스트 코터(한국명 이기복)
출생: 1970년 5월 1일, 본적 여수시
1972.03.02 여수에서 발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입소
1972.07.19 스웨덴 입양
원족 정강이에 홀터
연락처: keefrost@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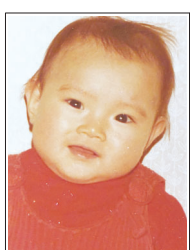
■ 이민선(한국명 이형자)
출생: 1972년 8월 25일(추정), 본적 전주
1972.11.09 순천서 발견
전남영아일시보호소 입소
이름과 생일 모두 보호소에서 부여
연락처: kittykatkorea@naver.com



■ 말린 버그스트림(한국명 한옥희)
출생: 1968년 5월 5일(추정)
1969.03.23 청주 시청 앞서 발견
한국아동양호회(CPS, 현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입소
가족 정보 없음
연락처: malin.m.bergstrom@outlook.com



■ 마리아 하이머(한국명 김선애)
출생: 1968년 8월 5일(추정)
1968.12.27 광주 신망원 앞서 발견
생일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음
1969.07.19 스웨덴 입양
가족 정보 없음
연락처: maria.heimer@statsvet.uu.se



■ 울리카 허브너(한국명 이장미)
출생: 1971년 4월 23일(추정)
1971.06.01 장성서 발견
전남영아일시보호소 입소
1971.09.04 스웨덴 입양
가족 정보 없음, 이름·생일 보호소에서 부여
연락처: ulrika_huebner@yahoo.se

광주·전남서 발견된 1960~70년대생 9명
가족 찾아 반세기만에 한국행...5일 여정
시, 유관 기관 협력 통역 등 지속 지원키로

1960~80년대 광주·전남에서 발견되거나 보호소에 맡겨진 뒤 스웨덴으로 입양된 9명의 한인들이 반세기 가까운 그리움 끝에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웨덴에 거주하는 입양동포들에게 '뿌리 찾기'를 돕기 위해 15일 오후 2시에는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함께 '스웨덴 입양동포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스웨덴 입양 한인협회 소속 회원들이 자신들의 출생·발견 기록을 토대로 "광주·전남 출신 추정" 사실을 확인하고 주 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을 경유해 광주시 국제관계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들은 13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를 방문해 가족을 찾는다.

방문단 다수는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광주·전남에서 발견되거나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 옛 적십자병원 일대)를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이중 한명은 1981년 광주 동구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돼 전남 영아일시보호소와 영신원을 거쳐 1983년 입양됐다. 다른 한명은 1968년 전남 함평군 시골길에서 미아로 발견돼 이듬해 스웨덴으로 갔다. 1972년 여수에서 발견돼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입소 후 같은 해 입양된 사연도 있다.

일부는 출산 직후 가족 사정으로 보호소에 맡겨지거나, 이름·생일이 보호시설에서 부여된 기록되기도 했다.

이들의 일정은 과거 발견 지점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옛 방문, 지역 언론·시민 제보 접수, 관계기관 기록 확인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외 입양동포의 고향 방문과 가족 찾기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제보창구 운영과 데이터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선철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는 "도착 이후 일정과 제보 접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통·번역, 기록 확인 등 실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야외활동 많아지는 가을...진드기 주의하세요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광주시는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이 10월부터 급증하는 만큼 개인 위생과 복장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쯔쯔가무시증 발생은 6268건으로, 이 가운데 10~11월이 4077건(65%)을 차지했다. 광주는 219건 중 176건(80.4%)이 같은 시기에 집중됐으며, 월별로는

10월 78건, 11월 98건이었다.

야외에서는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의복과 피부에 기피제를 사용해 접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풀숲이나 풀밭에 앉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하고, 야외활동 뒤에는 즉시 샤워하고 입었던 옷을 털어 세탁해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몸에 물린 흔적이나 발열·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